

안산병원 2023년 3/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보고



지난 9월 25일 오후 2시 30분 미래의학관 8층 병원장 회의실에서 2023년 안산병원 3/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안위)가 열렸다.

사측은 대표위원인 권순영 병원장을 필두로 배재현 기획실장, 강신관 경영관리실장 및 안전보건관리자들이 자리했으며 노측은 대표위원으로 송은옥 지부장 직무대행 및 전임간부, 이문재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참여했다. 이번 회의는 권순영 병원장취임과 송은옥 지부장 직무대행이 전임자로 부임 후 이뤄지는 노사 공식회의 인만큼 노사 위원과 참관인 모두가 인사를 하며 얼굴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권순영 병원장, 직장이 안전해야 한다는 것은 기본



본회의 전 대표위원 인사말을 통해 권순영 병원장은 “직장이 안전해야 한다는 것은 기본이다. 이를 위해 노사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같다. 산안위가 처음이라 어떤 안전들이 논의될지 궁금하다. 좋은 회의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송은옥 지부장 직무대행, 노사 소통하는 자리 계속 이어가자

노측 대표위원인 송은옥 지부장 직무대행은 인사말을 통해 “산안법에 의해 산안위가 개최되는데, 여기서 사업장의 안전

과 보건 등에 관련된 안전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법에 의해 개최된 산안위이지만 노사가 직원들을 위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병원장님 이하 임원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안전 외의 현실적인 이야기도 논의하는 과정으로도 진행되기도 한다. 노사가 소통하는 자리를 많이, 그리고 지속적으로 가지면 좋겠다. 노동조합도 병원 발전과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산안위 통해 ▲환자 체위변경 부서 손목보호대 ▲응급실 간호사 간편화 지급하기로.

노사 모두가 직원들의 안전보건을 위해 세심한 부분까지 개선해가는 노력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2/4분기 산안위를 통해 그동안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환자 체위변경으로 인해 터널증후군 <터널증후군 방지 위한 보호대> 을 호소하고 수술까지 하는 등의 어려움이 지속 되어 왔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손목보호대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수술실 및 중환자실에서만 지급되는 간편화를 응급실 간호사들에게도 지급하기로 했다.

산안위, 병원의 크고 작은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의결기구

노사 산안위를 통해 병원안전과 직원건강을 책임지자!

산안위는 산안법이나 산재처리 등 병원의 큼지막한 안전들을 논의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요, 부서 및 직원 개인들의 작은 안전·보건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병원의 모든 안전보건을 책임지고 결정하는 의결기구이다. 그만큼 노사가 해야 할 역할과 책임은 막중하다.

그 안에서 노사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진다면 노사가 바라는 행복한 직장의 원년은 조만간 다가올 것이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안전 및 결과 >

안건		답변
지난 산안위 이행 점검 건	<p>【고객응대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내멘트 송출 건】</p> <p>원외에서 원내로 전화 시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를 위한 폭언/폭행 금지]에 대한 안내멘트가 고객응대 접점 부서에 23년 2월부터 시행 중이다. 전 부서로 확대하도록 하자.</p>	<p>적용이 필요한 회선 현황을 파악하면 사전회의에서 논의된 예산 금액이 달라질 것 같으니 확인해보겠다. 또한 구로병원에서 시행한 안내멘트 송출로 인한 결과가 있다면 함께 확인해보겠다.</p> <p>한편, 온라인도 문제지만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 드라마 프로그램이나 경찰과 함께하는 훈련을 준비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하고 있다.</p>
	<p>【수술실 화재 시 대피로 확보 건】</p> <p>수술실 내 물품창고를 수술방으로 운영하게 되면서 공간부족으로 물품을 복도에 두고 있는데 이로 인해 환자 및 직원안전사고 발생, 장비 훼손의 가능성이 있다.</p> <p>더욱이 화재 발생 시 환자침대가 원활히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지 않기에 개선이 필요하다.</p>	<p>내용 확인하였고 문제점에 동감해 시설팀에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다. 그런데 병원 내 구조의 용도 변경을 하려면 절차가 있어서 당장은 어려울 수 있다.</p> <p>또한 의료원에 병원의 전체적인 공간을 확장하기 위해 보고를 올린 상황이다. 추후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p>
	<p>【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 건】</p> <p>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안을 10월 중순 노사 간 자료 공유 및 검토하고, 10월 말 3개 병원 노사 실무진간 내용 정리한 후 4/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자.</p>	동의한다.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관한 건	<p>【도급인(병원)과 수급인(주차, 미화 등 용역 업체)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보건협의체 노동조합 참여 및 안전보건회의록 공유 건】</p> <p>산업안전보건법 64조에 근거하여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보건협의체에 노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게 하고 회의록도 공유해 달라.</p> <p>노조가 참여한다면 실질적인 예산을 편성하거나 애로사항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p>	<p>원론적으로는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데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런 맥락의 취지에서는 동의한다.</p> <p>그러나 단위병원에서 결정은 어려울 것 같고 의료원에 문의를 한 뒤 4/4분기 산안위에서 말씀드리겠다.</p>
	<p>【위험성 평가시 노동조합 참여 및 자료공유 건】</p> <p>올해 5월부터 개정된 위험성평가에 새로운 평가 방식으로 매월 노사합동 순회 점검, 야차사고 분석, 제안제도 실시 방식의 평가가 생겼다. 노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자료도 공유해 달라.</p>	<p>상반기 1회씩 노사합동 순회 점검 진행하고 요청하시면 더 하도록 하겠다. 자료는 1년에 한 번 나오기 때문에 반기별로 드리기 어렵고, 필요시 전체 다할 때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p>
근로자의 유해 및 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건	<p>【응급실 간호사 간편화 지급 건】</p> <p>응급실은 현재 간호화 단일 품목만 지급 중이다. 간호화와 간편화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p>	<p>알겠다. 하지만 올해 지급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내년부터 지급될 예정이다.</p>